

담양군, 정주환경 구축 369억 투입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 체결
2029년까지 단계별 개발 추진
생활권역 맞춤형 인프라 개선

담양군이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 향후 5년간 총 369억원 규모의 농촌개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20일 담양군에 따르면 최근 서울 아모리스역사에서 열린 농촌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농림축산식품부와 협약을 맺었다. 행사에는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을 비롯해 전국 21개 협약 지자체장과 관계자 등 200여명이 함께 했다.

지난 2020년 도입된 농촌협약은 농림축산식품부와 기초지자체가 협력해 지속가능한 농촌을 조성하기 위한 제도다. 자치단체와 주민이 함께 수립한 농촌공간전략계획을 바탕으로 단일생활권 중심의 생활권 활성화 계획을 수립하고, 국비를 포함한 공동 투자가 이뤄진다.

담양군은 농림축산식품부의 전문가 컨설팅 및 계획 보완 절차를 거쳐 오는 2029년까지 국비 185억원을 포함한 총사업비 369억원을 투자한다.

단일생활권 계획에 따라 기초생활거점 조성 사업 1단계(무정면, 금성면, 월산면, 수북면), 2단계(봉산면, 대전면), 취약지역 생활여건 개



담양군이 최근 최근 서울 아모리스역사에서 농림축산식품부와 농촌협약을 체결했다. 담양군 제공

조 사업(반룡리)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농촌개발 사업은 지역의 보육·교육·문화·체육·보건·교통 등 다양한 생활서비스 기반이 부족한 상황에서, 생활권별 맞춤형 인프라 개선을 통해 주민 삶의 질을 실질적으로 높이는 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담양군은 올해부터 오는 2029년까지 시급한 거점별 생활서비스 자족률을 높이고, 생활서비스 간 연계구조를 형성해 정주 여건을 개선한다. 중기(2030~2034년)에는 기능 거점별 특화 전략을 바탕으로 정주환경을 고도화하고, 지역 경제 활성화와 농촌다움 회복을 통해 균형발전의 기반을 마련할 계획이다.

장기적으로(2035~2045년)는 담양읍을 중심으로 4개 권역 간 기능을 분화·연계해 거대 북

합화 거점 체계를 구축, 담양군 전역의 지속 가능한 균형발전을 이끌어낸다는 구상이다.

369억원 규모의 투자는 개별 면 단위 사업을 넘어, 담양군 전체 정주기반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파급 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보인다. 광역 교통망, 생활문화시설, 교육·복지 인프라와 연계된 거점 중심 개발은 향후 담양형 농촌정책의 대표 모델로 자리매김할 전망이다.

정철원 담양군수는 “이번 협약은 단순한 기반 정비에 그치지 않고, 담양군 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고 주민 주도의 정주환경을 구축하는 중요한 시작이다”며 “거점지역의 체계적 개발과 공동체 활성화를 통해 담양에서 누리는 행복한 ‘담로장생’을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담양=정일남 기자

귀농·귀촌 지원 ‘와야 고흥스테이 2호’ 입주

고흥군은 귀농·귀촌을 희망하는 외지인에게 주거공간을 제공하고, 지역 정착을 지원하는 ‘와야 고흥스테이 2호’ 입주를 시작했다. 20일 밝혔다.

고흥스테이 2호는 남양면 귀농귀촌행복학교 부지에 지방소멸대응기금 31억5,000만원을 투입 △원룸형 단독 및 다가구 주택 11호 △세대별 텃밭 △공동 실습농장 △농자재 보관창고 등을 갖춘 체류형 공공임대주택이다.

고흥군은 지난달 중순 후 입주자를 공개 모집했다. 입주 예정자는 총 11세대 14명이 선정됐다. 서울, 경기, 강원 등 도시에서 전문직에 종사한 퇴직자가 대부분이며, 평균 연령은 57세

다. 이들 중 귀촌 희망자는 5명, 귀농 4명, 귀어 1명, 귀향 1명으로 파악됐다.

입주 후 체류 기간은 1년이며, 월 임대료는 15만원(보증금 150만원)이다. 각 세대에는 텃밭과 함께 냉장고, 인덕션, 세탁기, 에어컨 등 생활에 필요한 기본 가전이 갖춰져 있어 입주 즉시 생활할 수 있다. 다만, 전기요금과 가스요금 등 공공금은 입주자가 부담한다.

고흥군은 청년과 귀농귀촌인의 안정적인 정착을 위해 △고흥스테이 3호(점암면 청년공공임대주택 45호) △고흥스테이 4호(고흥읍 스마트 영농 빌리지 60호)를 조성 중이다.

고흥=진종언 기자



구례군은 보건의료·복지 등 5개 분야, 22개 기관과 협력해 구례읍·문척면·광의면을 중심으로 ‘생명존중안심마을’ 사업을 추진한다. 구례군 제공

구례군, 생명존중안심마을 사업 3곳 조성

구례군은 구례읍·문척면·광의면을 중심으로 ‘생명존중안심마을’ 사업을 추진한다고 20일 밝혔다.

생명존중안심마을은 지역 주민이 주체가 돼 자살예방 환경을 조성하고 생명존중문화를 확산시키는 사업이다. 자살 위험이 있는 군민에게 맞춤형 연계 서비스 제공하고 지역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사업은 지역 내 보건의료·복지·교육·지역사회·공공기관 등 5개 분야, 22개 기관과 함께 추진한다.

참여 기관은 △고위험군 발굴·개입·연계 △자살예방 인식개선 캠페인 △자살예방교육 △자살고위험군 맞춤형 서비스 지원 △자살위험수단 차단 등 5가지 활동 중 2가지를 자율적으로 선정해 실천할 계획이다.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10월 기준으로 전남 지역의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전년대비 1.9명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구례군은 중장년층과 노년층의 자살 위험이 높아, 지역 맞춤형 자살예방 전략을 강화할 방침이다.

구례=손석봉 기자

장흥군, 수도권 관광객 유치 GS홈쇼핑서 1박2일 상품 판매

장흥군은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GS홈쇼핑-롯데투어와 협업체 관광상품을 판매한다고 20일 밝혔다.

정남진 장흥 1박 2일 골프·관광상품을 오는 25일 오전 6시부터 6시 45분까지 생방송으로 판매된다.

상품은 서울 출발을 기준으로 목요일부터 일요일로 주 4회 예정이며, 6월 4일부터 7월 21일까지 7주간 운영한다.

상품 가격은 관광만을 원하는 소비자는 19만 9,000원, 관광과 JNJ 골프 CC에서 골프까지 이용하는 소비자는 주중 25만 9,000원, 주말 29만 9,000원이다.

관광상품은 각종 드라마, 영화 세트장으로 활용된 장흥 옛교도소 뱀배웅 Zip 교도소 내부 관람 등 특색 있는 경험을 할 수 있고, 편백수 우드랜드에서 힐링체험도 가능하다. 새단장을 마친 장흥126타워에서 푸른바다와 숲을 한눈에 볼 수 있다.

장흥=이옥현 기자



장흥군이 수도권 관광객 유치를 위해 전남창조경제혁신센터, GS홈쇼핑-롯데투어와 협업체 관광상품을 판매한다. 장흥126타워. 장흥군 제공

클릭! 고향속으로



담양소방, 산불·임야화재 드론 감시단 운영

담양소방서는 산불 초기 대응체계 강화를 위해 산불·임야화재 드론 감시단을 운영한다고 20일 밝혔다.

감시단은 담양군 의용소방대와 협력해 지역의 산불 우려 지역을 중점적으로 순찰, 예방 활동에 주력하고 있다. 실제로 지난 4일 담양읍 삼만리 산림 인접 지역에서 불법 소각 행위 등을 발견해 현장 계도를 실시했다.

감시단은 접근이 어려운 험지나 사각지대를 드론을 활용해 순찰과 화재예방 활동을 전개, 화재 조기 발견과 신속한 대응으로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이중희 담양소방서장은 “건조한 날씨로 산불 위험이 높아지고 있다”며 “드론을 활용한 감시는 매우 효과적인 예방책이다”고 강조했다.

담양=정일남 기자



보성군, 벼 모판관주처리 현장 연사회

보성군은 최근 읍면 소재 육묘장에서 농업기술센터 주관으로 ‘벼 모판관주처리 현장 연사회’를 개최했다고 20일 밝혔다.

연사회는 노동력 절감과 병해충 방제 효율을 높일 수 있는 모판관주처리 기술을 소개하고 현장 시연과 질의응답을 통해 기술 활용법을 공유했다.

모판관주처리리는 이앙 1~2일 전 살충제, 살균제, 작물 활성제를 물에 희석, 물 뿌리개를 이용해 육묘 상자당 400ml를 관주하는 방식이다. 약제 살포 시간은 관행 대비 95% 이상 단축, 농약·처리비용은 13% 절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보성군은 올해 벼 생육 방제를 위한 모판관주처리 지원 사업을 추진, 총 370ha에 약제비를 지원하고 있으며, 해당 기술 보급 확대에 힘쓰고 있다.

보성=백종두 기자



화순군 도곡면 지사협, 정기 운영회의

화순군 도곡면 지역사회보장협의체가 최근 도곡면 행정복지센터 회의실에서 정기 운영회의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지역 주민들의 복지 증진과 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들을 위해 찾아가는 이·미용 서비스를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신임 문형광 위원장은 “도곡면을 아름답게 가꾸기 위해 이웃과 함께하는 따뜻한 복지 활동을 활발하게 펼치겠다”고 말했다.

김수진 도곡면장은 “복지 사각지대에 놓인 주민에게 실질적인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정책에 적극 반영하겠다”며 “지역사회보장협의체, 복지기동대와 협력해 복지 안전망 구축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화순=이종백 기자